

10차시. 블루베리의 번식

- 1. 블루베리의 번식방법**
- 2. 삽목 번식의 장점**
- 3. 숙지(휴면지) 삽목**
- 4. 녹지(풋가지) 삽목**

1. 블루베리의 번식방법

- 블루베리 번식방법은 대부분 삽목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목, 취목 그밖에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등이 이용되고 있음.
- 실생번식의 경우 묘목의 증식보다는 주로 품종육성을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음.

2. 삽목 번식의 장점

- 어미나무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형질을 갖는 개체를 얻을 수 있음.
- 기술적으로 간편하여 일시에 다수의 개체를 얻을 수 있음.
- 접목이나 취목에 비해 방법이 간편하고 적은 재료의 어미나무로 부터 다수의 개체를 증식할 수 있음.
- 실생에 비하여 개화와 결실이 빠름.

3. 숙지(휴면지) 삽목

1) 삼목시기

- 삼목에 알맞은 시기는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름.
- 블루베리의 경우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경 눈이 움직이기 직전에 삼목하는 것이 자연적인 조건에서는 유리함.

2) 삼수의 조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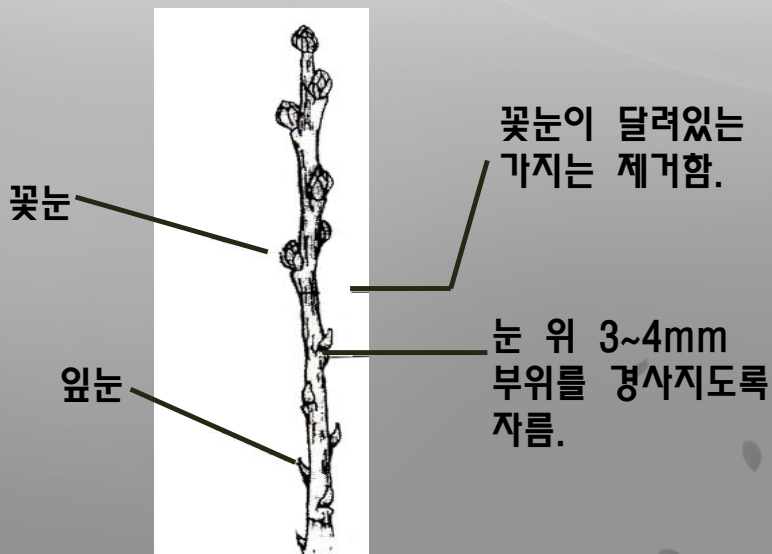
- 삼수 준비는 전년에 새로 자란 충실한 가지를 2월 상순 재취하여 2~3℃ 되는 냉장고에 마르지 않도록 비닐에 싸서 보관하거나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온도가 낮은 그늘진 곳에 묻어 두었다가 삼수로 이용함.
- 삼수 기부는 절단면이 삼목 용토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게 하기 위해 비스듬히 자르고 꽃눈이 달려있는 가지는 뿌리내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제거함.

2) 삽수의 조제

- 삽수를 자를 때 윗부분은 눈 바로 위 3~4mm 되는 부위에서 눈이 없는 쪽을 향해 약간 경사지도록 자름.
- 삽수는 대략 굵기가 연필두께 보다 가늘고 눈의 수는 5개 정도로 7~8cm 길이가 적당함.

2) 삽수의 조제

그림1. 삽수 준비



3) 삼목상 준비

- 삼목상은 길이 50cm, 너비 35cm, 높이 10cm 정도의 물 빠짐이 가능한 플라스틱상자를 이용함.
- 삼목 용토는 보수력과 통기성이 좋고 비료분이 없는 청결한 재료를 이용함.
- pH가 보정되지 않은 피트모스와 입자가 굵은 펄라이트를 7:3의 비율로 혼합처리함.
- 혼합한 삼목 용토는 9cm 깊이로 상자에 담고 삼목 당일 오전에 충분히 관수하여 포화상태가 유지되도록 함.

4) 삼목 방법

- 1 미리 조제한 삼수는 마르지 않도록 물에 적신 거즈나 수건으로 싸서 준비함.
- 2 삼목직전 삼수의 기부를 발근촉진제인 NAA나 IBA 500ppm에 5초간 순간 침지한 후 삼목하면 비교적 발근이 어려운 품종도 발근이 가능함.
- 3 삼수를 꽂는 방법은 눈 3개는 지하부에, 눈 2개는 지상부에 남게 꽂음.
- 4 삼목상자(50 x 35 x 10cm) 한 개 당 삼수 50개를 꽂으면 적당함.

5) 삼목 후 관리

- 블루베리의 경우 뿌리내림에 적당한 삼목상의 온도는 15~25℃ 범위임.
- 뿌리 내림을 좌우하는 물질은 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숙지삼의 경우 삼수가 발아한 후 되도록 약하게 차광하여 관리함.
- 삼목상 위에 약 30% 정도의 빛을 차단할 수 있는 흑색 차광망을 1m 높이로 설치함.

5) 삼목후 관리

그림2. 삼목직후 차광망 설치



5) 삼목후 관리

- 삼목 후 30일 정도 경과되면 충실한 삼수는 거의 모두 발아되고 이때부터의 관리가 뿌리내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임.
- 삼상은 과습되지 않도록 관수에 유의하고 뿌리가 내리기 직전에는 약간 건조하게 삼목상을 관리함.
- 발근이 시작되면 차광망을 거두어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묘상이 마르지 않게 관수에 신경을 씀.

5) 삼목후 관리

- 뿌리가 완전히 형성된 삼목묘는 pH 4.0~5.0의 피트모스와 퍼라이트를 8:2로 혼합한 개별 포트에 이식함.
- 이식 후에는 질소, 인산, 가리를 고루 함유한 비료를 물에 타서 20일 간격으로 2~3회 관주함.

5) 삼목후 관리

그림3. 숙지삼 3개월 후 발근묘



5) 삼목후 관리

그림4. 개별포트에 이식한 숙지삼목묘(1년생)



4. 녹지(꽃가지) 삽목

1) 삽목시기

- 보통 6월 중순에서 7월 중순까지 장마기에 실시하는 것이 적당함.
- 지역에 따라 8월 상순까지도 가능함.

2) 삼수의 조제

- 5~6장 정도의 잎이 달린 가지를 잘라 윗잎 1~2장을 남기고 아랫 잎은 제거함.
- 예리한 칼이나 가위로 삼수 아래를 비스듬히 자른 후 절단면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담은 용기에 꽂아 둠.

3) 삼목상 준비

- 삼목용 토는 발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트모스(pH 4.0~5.0)와 펄라이트의 비율을 약 8:2 정도로 혼합하여 조제함.
- 상토의 깊이는 약 8~9cm 되도록 준비함.

4) 삼목 방법

- 미리 준비한 삼목상자(50 x 35 x 10cm)에 상토를 채우고 포화상태로 만듦.
- 이후 삼목 상자 한 개 당 삼수 50개를 잎이 서로 겹치지 않게 비스듬히 꽂는다.

4) 삼목 방법

그림7. 녹지삼목상(삼목직후)



5) 삼목후 관리

- 삼목상은 상내온도가 25~35℃ 범위, 습도는 80~90% 이상의 포화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.
- 농가에서 간이시설로 삼목상을 관리하려면, 적정 온·습도 관리가 필요하므로 발근될 때 까지 삼목상 위에 60~70cm높이로 비닐 터널을 설치하여 포화습도를 유지하고 그 위에 1m 높이로 2중 터널을 설치한 후 30% 흑색 차광망을 씌워 관리함.

5) 삼목후 관리

- 발근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0~60일 정도 지나면 거의 모든 품종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함.
- 발근이 확인된 삼목상은 서서히 비닐과 차광망을 열어주어 삼목묘가 순화될 수 있도록 함.

5) 삼목후 관리

그림6. 녹지삼목시 포화습도유지를 위한 비닐설치



5) 삼목후 관리

그림7. 녹지삼목시 밀폐 삼목상 설치후



5) 삼목후 관리

그림8. 발근이 완료된 녹지삼목묘 순화



